

통일독일, 베를린의 두 대학교에서

朴 魯 英

(忠南大 社會學科)

출발 전부터 익히 들었던 그대로, 가서 본 통일독일은 몸살이 심했다. 물가와 세금이 오르고 주택난이 심화되었다. 전에는 안 내던 돈을 내야 되게 되었는데 하면 복지는 점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인다. 통일이 되어도 아무도 부담 따위를 저야 할 이유 같은 것은 절대 없노라고 거짓말 하고, 뿌리 깊은 게르만인의 민족주의 정서를 고조시켜 득표로 연결시켰던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에게 속아도 아주 단단히 속았다고 서독 출신 각쟁이들은 심하게 투덜댄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비틀거리는 것이 딱히 통일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주된 이유는 세계경제의 심각한 불황에 있고, 통일은 좀 거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쪽에 대한 투자가 독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대단치 않음이 이 정설의 정설임을 증명해 줄 듯 싶다. 그렇다면 서쪽 사람들의 불평은 상당히 표적을 빗나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다. 동쪽 사람들의 깊은 좌절상태—정작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에 비한다면 말이다.

벤츠나 베엠베는 아니더라도 폭스바겐 정도는 그래도 굴러 볼 수 있으려니 여겼을 많은 동독인들에게 정작 찾아 온 것은 실업과 복지의 후퇴, 경쟁이라는 낯선 규칙, 그리고 거지나 암채족 쫓으므로 자기들을 바라보는 서쪽 동포들의 따가운 눈총, 요컨대 생활고와 당혹감과 심한 열등감이다. 서쪽 사람들이 겪는 별것도 아닌 어려움의 일차적 원인이 세계경제의 불황인 것과는 달리 동쪽 사람들의 생활고와 당혹감, 그리고 열등감의 원인은 전정 통일, 바로 그것일 듯 싶다. 해서, 일부 호네커 돌아 오라고 소리쳐 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다 지나간 일임을 잘 알면서 화김에 그냥 한 번 해 보는 소리이다. 그런 축들은 그나마 의욕이 남아 있는 축들이다. 대다수 동독인들은 숫제 말이 없고 표정도 없었다. 물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SPD와 PDS의 약진을 보여 주었다는 최근의 동독지방의 한 선거 결과는 그들의 생각의 일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공격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독일 '놈'들의 '배워들 만한 못된 기질'이라고 이십년 넘게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설명해 준다. 그래서일까.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 외국인(특히 터키인) 적대행위이다. 배후에는 분명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정치세력이 있을 터인데, 필시 히틀러식 수법으로 약진해 보고자 하는 극우세력일 것이다. 불타는 터키인 숙소가 다하우(Dachau, 독일내 최대 규모의 나찌 수

용소가 있던 뮌헨 근교의 도시. 지금도 가스실, 화장터, 막사 등이 보존되어 있고, 전시설도 있어서 역사공부 삼아 틀나면 한번쯤 들러 볼 만한 곳이다)의 살풍경과 겹쳐지면서 심란해진다. 다시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빠지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극우적 대안은, 과거에 정답이 아니었듯이, 지금도 정답일 수 없을 듯하다. 온갖 차별 받아가며 힘든 일, 꾀는 일 가리지 않고 도맡고 있는, 불쌍하기로 말하자면 그래도 게르만인인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잔뜩 주눅 든 얼굴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작 돌아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독일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박해자들의 처지 또한 더욱 나빠지게 되지 않을까. “가난 때문에 이곳으로 불러 왔던 우리가 이제 다시 가난 때문에 이곳을 쫓겨나야 한단 말인가.” 누군가가 휘갈겨 놓았다. “국제적 연대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구호를 외치는 콘스탄츠대학교의 반나짜 시위행렬에는 학생은 물론 교수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이름이 재미 있다. 왜 하필 ‘자유’ 대학교인가. 사정인즉 이렇다. 원래의 베를린대학교는 훔볼트대학교였단다(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대학교’ 들에는 ‘대학교’가 하나씩밖에 없다). 그 베를린대학교는 이차대전 후 동베를린으로 편입되었다. 서베를린에도 대학교가 있어야 하게 되었다. 새로 세워진 대학교는 ‘자유’ 대학교로 명명되었다. ‘자유’라, 어떤 의미를 갖는 말이었을까. 반공·반소·반동독이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더 해방지향적인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인가. 동독의 사회과학(차라리, 국가 이데올로기)은 그 ‘자유’를 제국주의자와 파시스트 잔당들의 상투적인 미사여구 정도로 치부했다. 과장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대접의 이면에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중대한 비판이 담겨 있기도 했다. 시장적 자유의 지평, 그것의 협애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분명 그렇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사회주의 동독에서만 꽃피고 있다고 했던 요란스런 선전, 그것은 단순히 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장벽이 무너지고, 장벽 저쪽, 간혀 있던 자유의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나자, 장벽 이쪽의 자유가 면죄부라도 받은 듯이 행세하게 되었다. “어떤 비판은 그 비판을 제기한 자가 거짓말장이임이 밝혀지는 순간 원인무효가 된다.”는 비약된 논리의 날개를 달고, 장벽 이쪽의 자유는 이제 유일하게 진정한 자유인 양 화사하게 비상한다. 그 날개 위에 속명처럼 자신의 협애성을 신고서.

훔볼트대학교, 원래의 베를린대학교이다. 한때 세계 철학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던 곳. 헤겔, 맑스 등등의 인물들이 거쳐간 곳. 고색이 창연하다. 어느 건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레닌이 여기에 서 연구했었다고 소개하는 동판이 붙어 있다. 이 유서 깊은 학교에서 동독의 학자들은 서독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공격하고, 동독과 사회주의와 소련을 미화하는 일을 해 왔다. 슈타지와 관련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은 추방되고 없다. 자유대학의 어느 교수는 목청 높던 동독 교수들이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단지 권력의 하수인들일 뿐이었다는 사실, ‘진정한 맑스주의자’가 ‘단 한 명도’ 동독에는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통일 후 깊은 충격을 받았노라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어느 교수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떠난 자들이 비워 놓은 자리들을 서독 출신 학자들이 채우고 있다. 하빌리타치온을 마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던 중 동독 대학교들에서 대거 생겨난 빈 자리를 채우러 동쪽으로 가는 서독 출신 학자들. 그들은 확실히 통일의 수혜자들이다. 문득 눈에 익은 ‘테제’ 하나를 만난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양하게 세계를 해석해 왔다. 문제는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굵직한 금속 글자들로 벽면에 새겨져 있는데, 또 하나의 상징인가. 철자 하나가 달아나고 없다. 이빠진 자리처럼 훔한 그 자리를 누구도 채워 넣을 생각을 안하는 듯 싶다. ‘테제’ 자체는 의연히 예지를 담고 있건만, 그것

을 배웠다는 자칭 제자들은 필경 스승을 욕되게 해버렸던 것이다. 학교 앞 광장, 거기에서 나찌 당국은 인류가 남긴 가장 훌륭한 책들을 불태웠노라고 소개하는 동판이 붙어 있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독일판 분서갱유였다던가. 도대체 학문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 적나라한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은밀하지만 오히려 더욱 심각한 것일 수도 있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 한 토막. 독일에는 우리처럼 일류니 이류니 삼류니 (혹은 등외?), 또는 서울 소재 대학이니 지방 대학이니 하는 따위로 학교들을 차별하는 (또 현실적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도가 없었다. 물론 특성화로 인한 바람직한 차이는 있었다.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는 이 화목한 관계의 밑바닥에는 지역간 균등발전이 그 튼튼한 기초로 깔려 있다. ‘대학도시’들의 자부심, 튼튼한 학교 제정, 등록금 없이 도서관, 기숙사 등 우수한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 그런 교수와 그런 학생들이 엮어 가는 진지한 수업, 모두 듣던 대로 부럽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대가 많은 독일 사정 때문에 불편을 겪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저주성 불평을 했다. “아무리 독일 경제가 튼튼하다고 해도 이 친구들 이렇게 일 안 하다가는 결국 망하고 말걸.” 한 학기쯤 지난 후 그 친구가 또 말했다. “교육에 이처럼 엄청난 투자를 하는 나라가 결코 망할 리가 없소.” 내외적 여건들의 격동을 겪으면서도 독일 대학들은 어쨌든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다. ■